

제15호 불기2543(1999)년 7월 19일 월요일

발행인·안종호/편집인·김홍배/인쇄인·정명자

구독신청: 552-1083

## 본 종 사회복지법인 설립

불교종단 가운데 세 번째로 설립, 지난 5월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

정통밀교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있는 본 종단에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법인(이사장 안효강 법장원장)이 지난 5월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았다. 지난 해 8월 14일 전국 승직자가 참여하는 승단총회에서 복지법인의 설립을 결의한 이후 근 1년에 걸쳐 추진한 성과이다. 종단은 법인설립을 계기로 그간 벌여 왔던 다양한 복지관련사업을 보다 체계적,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사업의 준비에 들어갔다.

본종은 27년의 짧은 종단사를 갖고

있으나 창종 무렵부터 종조이신 원정(苑淨)대종사께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이념으로 삼고 사회계몽과 사회복지의 구현을 주창하신 바 있고, 이에 따라 10년 전 학교법인 대동학원을 설립, 종립학교로 부산 동해중학교를 인수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 괴산에 대규모 수련원을 건립 매년 하계 청소년수련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오고산 조계종 총무원장)의 특별분과위원회인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지화 불교총지종 통리원장)와 소비자보호위원회(위원장 안효강 불교총지종 법장원장)를 전담하고 있으며, 특히 97년 말부터 물이탁친 경제난국을 맞아 98년 1월 21일부터 실직자를 위한 지원시설로서 '오후기모임터'를 설치 운영하여 불교계 안팎의 큰 호응을 받았이다.

이런 성과로 사회복지법인이 부재한 상태에서도 98년 12월에는 강남구로부터 강남구 최초의 노인복지전문시설인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를 수탁받았으

며 올 3월부터 정식업무를 개시한 이 시설은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상당한 모범을 보이고 있다.

설립 당시의 법인 기본재산으로 현금 5억원을 출연, 종단 차원에서 추진했던 복지관련사업의 이관에 따른 사업비 등을 추가 지원과 후원, 사업수익으로 충당하게 된다.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은, 부처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조사와 연구,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위탁 운영, 사회복지자원의 개발과 각종 지원 사업에 정진할 것이며 이미 종단 차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성과를 한층 발전 시켜 새로운 2천년대 불교의 사회화, 사회의 불교화에 밝은 이정을 세우도록 할 것이다.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의 이사로서는 안효강님을 비롯, 민문기님, 이기식님, 김점순님, 신순덕님, 이무형님, 서진업님, 권승자님, 이용원님이며 감사에는 최봉해님, 이수성님이 선임되었다.

▲ 복지법인 설립으로 사회복지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사진은 지난 2월 9일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개원 장면

다시듣는 종조법설

## 밀교란 무엇인가?



▲ 총기 7년 10월 17일 '아사리 가사 봉대식'에서 가사를 봉대하시는 원정 대성사

### 밀교의 의식

밀교는 의식(儀式)을 주로 한다. 의식이란 특정한 시기에 다른 질서가 지배하는 그것이 바로 의식(儀式)이요 제전(祭典)이라 할 수 있

### 의식은 심비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다. 또 특정한 장소가 일반의 장소와 구별되는 것도 종교의 특색이다. (예, 도량, 불단 등) 또 용구, 언어, 행동 등이 구별되어 일상생활과 달리 시간, 공간, 물체, 동작, 언어 등이 성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상대하여 일상생활을 세속적이라고 하고 순불교적인 생활을 출세간적이라고 한다.

종교는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 비밀적인 부분이 있다. 수행의 깊이에 따라 그 비법을 수습 또는 체득하는 것이 본령(本領)으로 되어 있다. 여타의 종교 보다 불교에서 비법(秘法)이 많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밀교라고 하겠다.

반된 성질이 밀교 속에는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본질, 즉 제3의 특질이 의례(儀禮)이다. 심비적 불(佛)의 세계를 관망하는 것만으로는 인간 구제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표현된 상징을 해독하여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에게 재기시키는 것, 환연하면 상징으로 표현된 불의 체험을 상징을 통하여 행자가 추체험(追體驗)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밀교실천의 규정인 의궤인 것이며, 이러한 의궤는 밀교의 여러 가지 의식에 나타나고 있고, 경전에 방대한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

### 하반기 49일불공 회향, 방생법회 봉행

지난 7월 16일 교구별·사원별로 일제히 실시

하반기 진호국가 49일 불공이 지난 7월 15일 회향되었다. 회향 불공을 마친후 각 교구별 또는 사원별로 '49일 회향 방생법회'를 7월 16일 일제히 봉행했다. 서울·경인교구와 대구·경북교구는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서 학생 방생법회를 가질 예정

이며, 부산·경남교구와 충청·전라교구는 각 사원별로 실시한다.

이번 방생은 어류방생을 자체하고 교도소, 복지관 방문 등 어려운 이웃을 돋는 인간방생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하였다.

## 제9회 여름학생수련법회

■ 행사기간: 총기 28년 7월 26일~28일(2박 3일) ■ 장 소: 충북 괴산 수련장

### 총기 28(1999)년 여름수련법회일정

일자	시간	교육 내용	교육 장소	비고
7월 26일	~ 16:00	수련장 도착	운동장	
	16:00 ~ 16:30	입소식	운동장	총무부장
	16:30 ~ 19:00	만남의 장소	운동장	조편성, 숙소배정
	19:00 ~ 20:00	저녁공양		
	20:00 ~ 21:00	법회	서원당	
	21:00 ~ 22:00	세면과 자유시간		
	22:00 ~	취침	숙소	
7월 27일	06:00 ~ 07:00	기상	운동장	세면 및 체조
	07:00 ~ 08:00	아침공양		
	08:00 ~ 08:30	법회	서원당	
	08:30 ~ 09:00	자연학습	송면주차장옆	민속놀이, 족구, 골든벨 등
	12:00 ~ 13:00	중식		
	~ 19:00	자유시간	물놀이	
	19:00 ~ 20:00	저녁공양	수련장	
	20:00 ~ 20:30	법회	서원당	
	20:30 ~	총지 여름 밤 축제	놀이미당/축제마당	기마전, 줄다리기, 오작교건너기 등
7월 28일	07:00 ~ 08:00	기상	운동장	
	08:00 ~ 09:00	법회	서원당	
	09:00 ~ 10:00	아침공양		
	10:00 ~ 12:00	강의	동산	법장원
	12:00 ~ 13:00	퇴소식	운동장	주변정리
	13:00 ~	중식		

■ 문의처 ■ 불교총지종 통리원 전화(02)552-1080~3 / 팩스(02)552-1082

■ 접수처 ■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각사원

## 제5회 어린이수련법회

■ 행사기간: 총기 28년 7월 26일~28일(2박 3일)

■ 장 소: 충북 괴산 수련장

### 총기 28(1999)년 어린이수련법회일정

7월 29일	7월 30일	7월 31일
접수	일어나기	일어나기
입제	아침바람쐬기	아침바람쐬기
반배정	아침불공	찬불가 배우기
동무만들기	아침공양	아침불공
게임	놀이하나	아침공양
저녁공양	전래놀이 및 자연놀이	시삼
저녁불공	점심공양	점심공양
찬불가	이동	회향
염주꿰기	놀이2	
부처님나라로	자연놀이와 물놀이	
	간식	
	레크레이션	
	저녁공양	
	휴식	
	모둠별 장기자랑	
	별보기운동	
	부처님 나라로	

■ 문의처 ■ 불교총지종 통리원 전화(02)552-1080~3 / 팩스(02)552-1082

■ 접수처 ■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각사원

## 社說

## 사회복지법인의 출범에 즐음하여

지난 5월 29일자로 우리 종단 사회복지법인이 정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아 사회복지사업에 일대 전기가 마련되었다.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창종 당시부터 종조이신 원정대성사께서는 불교의 근본적 가르침이 현세정화와 중생교화에 있음을 밝히셨고, 이에 따라 중생의 복지사업을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종단의 교회사업에 있어 사회복지관련사업이 항상 우선 순위에 있었음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이에 종단 내외에서는 오래 전부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별도의 사회복지법인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예전에 비해 불교계의 사회복지 활동이 상당 수준으로 제고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회 전체적으로나 타 종교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그것은 종단 차원의 사회복지법인을 갖고 있는 종단이 우리 종단

까지 합쳐 고작 3개의 종단에 불과 하다는 점이 반증하고 있다.

이제 복지법인의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종도들의 애정어린 동참은 필수적이다. 사회복지활동에 경험 있는 전문인력의 발굴과 육성 또한 승직자와 종도들의 동참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어렵다.

그간 종단 차원의 의료적인 사업에 다소 관심이 적었던 이들이 있었다면 이번 복지법인의 출범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참여의 자세를 확고히 하여주길 바란다. 새로운 천년대가 시간을 다투며 눈앞에 오고 있는 이때, 문화와 복지의 시대를 맞는 우리의 인식과 자세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종단의 발전, 한국불교의 발전, 그리고 민족과 사회의 장래에 있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고 할 수 없다. 복지법인의 출범을 자축하며 거듭 종도들의 애정어린 참여를 독려하는 바이다.

## 사회를 무너뜨리는 공직사회의 부도덕

다시는 없었어야 할 불행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여름철 집중적인 하기수련회가 본격화되기도 전인 지난 6월 말 경기도 화성의 한 수련원에서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파지 않을' 우리들의 어린 선재동자들이 화마의 깊숙이 숨졌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스무 명에 달하는 아기부처님이 미처 맑은 동심을 펴보지도 못한 채 참으로 비극적으로 숨을 거두었다.

이 사건의 일차적인 책임은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수련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업장의 주인과 그 직원일 것이며 또한 이들과 모종의 결탁으로 시설의 사용을 인허가 해준 해당 관청의 주무자임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이들로 인해 아기부처님들이 비명에 갔다는 점은 참으로 용서받지 못할 중죄를 지은 것이다. 감히 결과가 이렇게 난 것에 대해 이런저런 사연을 달아 변명을 한다면 그 또한 숨진 새싹들에 대해 또 한번의 죄를 짓는 것임에 더불어 아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부정의한 세력과 공직자들의 결탁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참혹상을 만들고 있는가가 또다시 여지없이 드러났다. 성수대교봉고, 삼풍백화점봉고, 항공기주락, 여객선 침몰, 도시가스폭발, 지하철사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유사한 사고의 발생과 엄청난 희생을 치루고 있는

이면에는 빠짐없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기관의 직원과 국민의 안전보다는 편법 불법으로 이운을 행기려는 장삿속이 작용하고 있다. 사고가 터지고 유족들의 통곡이 하늘에 닿을 때마다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아 한다는 각성이 물어치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도 그때만 지나면 그만이다. 왜 이런 비극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지 실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물신승배가 팽배할 수 밖에 없는 사회체제상의 문제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무서운 현실이다.

일부의 배를 채우기 위한 부정은, 그 일부의 의도대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회전체의 근간은 밀뿌리부터 무너져 내리게 된다. 비리의혹을 사고 있는 자를 감싸다가 민심을 잃은 '국민의 정부'처럼 일부의 반사회적 행위가 칭찬되는 악영향은 결코 일부에 그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공직사회의 부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특별검사제의 전면도입, 현대 정치사의 미궁에 빠져있는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등 과감한 개혁조치를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의 건강성이 회복되지 않고는 사회정의가 바로 설 수 없음은 삼척동자라도 알고 있는 철칙이다.

## 종단 특집다큐멘터리 제작

본 종 주관, 불교TV에서 제작



▲ 그동안 불교TV에서 제작한 종단관련 방송프로그램 테이프

본 종 통리원과 법장원은 종단을 흥보하고 밀교역사와 교리를 더듬어 보는 대작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다. 제작은 불교TV에서 맡기로 했다. 그간 불교TV를 통해 종단관련 행사나 법회 등 각종 특집 프로그램이 제작되었지만, 종단의 성장과정, 밀교 수행법, 종단주요사업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분량시간은 50분.

## 불교도 금강산순례 성료

한국불교 각 종단대표자와 불교도 1천1백여명이 참여한 금강산순례가 지난 6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성료됐다. (관련 관립기행문 2, 7면)

일정 중 6월 4일에는 관광여객선 금

강호 선상에서 각 종단대표자들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순례의 의미와 성과를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본 종 총지회 통리원장을 비롯하여 종단협의회장 고산스님 등 각 종단대표스님들이 함께 자리했다.

## 불사법요집 개정판 출간



▲ 이번에 개정 출간한 신도용 '불사법요집'

본 종 법장원에서는 불사법요집 개정판을 출간했다. 그간 승단에서 기존의 불사법요 내용 가운데 부적합한 것을 삭제하고 일부내용을 추가해야한다는 지적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지난 97년부터 개정작업을 위한 자료수집과 실무회의를 거쳐 지난 4월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교정작업을 마친 후 지난 6월 완간을 하게 됐다. 이번에 출간한 불사법요집은 신도용 법요집이다.

## 불교기초교리강좌 재개

지난 7월 5일 개강, 총지사 강의실

금년 상반기 불교기초교리강좌가 지난 7월 5일 오후 7시 총지사 강의실에서 다시 시작됐다. 강의교재는 '불교개론'.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30분간 실시된다.

수강 및 교재문의: (02) 508-9833 법장원 밀교연구소.

## 동정

## 총지화 통리원장

## 효강 법장원장

- 총지화 통리원장은 지난 6월 30일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대회의식에서 열린 본 협의회 정기이사회에 참석했다.

- 지난 6월 30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간다라 불교미술대제전' 개관식에 참석했다.

- 지난 6월 25일 경기도 포천 금강사에서 봉행된 '6·25 전몰장병 전도 위령제'에 참석했다.

- 지난 6월 20일 서울 구기동 금선사에서 봉행된 불교TV이사 '고 이영숙 추모법회'에 참석했다.

- 지난 5월 28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던 '평화를 위한 국회 종교의원 모임' 참석했다.

- 지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김천직지사 등지에서 열렸던 '제20차 한일불교교류대회'에 참석했다.

- 효강 법장원장은 지난 7월 1일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프로에 출연했다. 방송 내용은 총지총사회 복지법인설립과 관련된 것으로 효강이사장의 인터뷰 방송이었다.

- 지난 6월 29일 오후 2시 불교방송 회의실에서 개최된 불교방송 이사회에 참석했다.

- 지난 6월 25일 불교TV의 '만나고 싶었습니다' 프로에 출연했다. 이날 출연은 총지총사회 복지법인 설립인가와 관련해서 복지재단 대표이사 자격으로 출연했다.

- 지난 6월 25일 불교TV의 '만나고 싶었습니다' 프로에 출연했다. 이날 출연은 총지총사회 복지법인 설립인가와 관련해서 복지재단 대표이사 자격으로 출연했다.

- 통리원 근무 김진희 쳇무의 장남 승법 군의 결혼식이 지난 6월 26일(토) 오후 1시 강북웨딩홀 3층 크리스탈홀에서 있었다.

## 구독신청

(02) 552-1080~3

전화/ 02-508-8933 전송/ 02-552-1082

홈페이지 www.chongji.or.kr

## 기사제보

## 종립학교 불교반 교리강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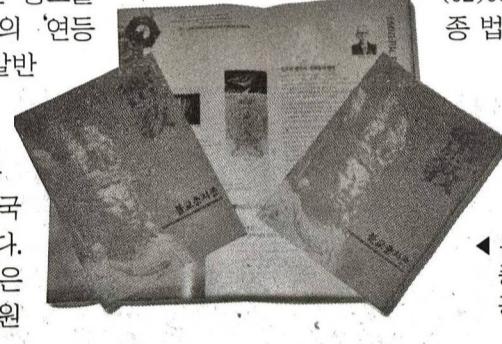
지난 5월부터 매월 1회, 부산 정각사에서

본 종 법장원은 종립 동해종학교 불교반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매월 1회(첫째주 토요일) 불교교리 강의를 실시해왔다. 그동안 종립학교 불교반의 운영에 대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체계적인 불교교리 강의가 없었던 만큼 사실. 본 강의는 지난 2월에 있었던 재단이사회에서 교리강의와 법사파

견을 정식으로 종단에 건의하면서 더욱 체계적인 강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 강의내용은 불교개론과 불교설화 등으로 꾸며졌다. 강의는 법장원 김진태 수석연구원이 실시했다. 지난 7월 3일에 세 번째 강의가 있었다. 토요일 오전 9시부터 4시간 동안 실시됐다.

## 종단 홍보물 제작·배포

법장원 밀교연구소는 지난 5월 종단 홍보를 위한 칼라판 홍보물을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물은 지난 5월 16일의 '연등 축제' 행사에서 알반 불자들에게 이미 배포되었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에 맞추어 전국 사원으로 보내졌다.



◆ 본 종 법장원에서는 종단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했다.

## 재기의 의지를 짓밟은 화마

지난 6월 23일, 불자기업『디엔에프』 보일러 과열로 화재발생

96년 10월 대기업의 횡포로 도산 하였다가 본 종단과 한국불교종단협 소비자보호회(위원장 안호강 불교총 지종 법장원장)의 큰 후원으로 3월부터 공장재가동에 들어갔던 전 삼우화학(대표 배호성, 56세, 경북 문경시 산양농공단 1단지 내)에 뜻하지 않은 화마가 덮쳐 2년여를 재기의 힘으로 살아왔던 임직원이 크나큰 실이에 빠졌다.

지난 4월 17일 새로이 주식회사『디엔에프』라는 명칭으로 회사등기를 마치고 그전 삼우화학 공장 및 기계설비를 경매를 통해 취득함으로써 정상가동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의 D사와 월간 150톤, 유럽의 H사와 150톤, 일본 A사와 200톤 등 국내외에서 1년간 1만톤의 물량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거의 철아작업을 하던 중 6월 29일 낮 12시 55분 연신기에 열을 공급하는 보일러가 폴로로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 공장과 중요설비가 소실되었다. 회사측에 따르면 기계설비 4억8천만원, 공장건물 1억2천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화재보험에 건물의 일부만 들어있어 기계설비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다고 한다.

◆ 디엔에프 주식회사 연락처  
경북 문경 산양공단 내 0581-553-1154, 배후성거사 017-252-4850 / 공장장 박영춘 017-256-4850

· 성금구좌 농협(예금주: 디엔에프 주식회사) 783-01-208003

## 종보관련 업무분장

## 노인·실직자에 무료급식

지난 6월 17일, 본종 총지사

본종 총지사(주교 총지사)는 지난 6월 17일 탑골공원 새마을회관에서 무의탁노인 및 실직자 4백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활동을 펼쳤다. 무료급식은 오후 4시부터 4시간 동안 실시됐다.

그간 종보제작과 밭송을 법장원에서 해왔거나 원활하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업무를 분장기로 결정했다.

◆ 참된 유머는 머리로부터 나온다 기보다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웃음에서 나오는게 아니고 활짝 깊숙이 놓여 있는 조용한 미소로부터 나온다.

◆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다는 것보다는 남에게 행복해 보이기를 더 원한다.

◆ 한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었다. 연은 하늘 높이 올라가 구름속에 가리 졌다. 그때 지나던 나그네가 "야, 너 뭐하고 있니?" "연을 날

금강산 순례를 마치고… 1

## 남북통일의 준비와 각오 다지는 계기…



백월사 주교 사홍화 대전수

남북이 가로 놓인 상황에서 북한 땅을 혼자서 밟아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번 불교도 금강산순례는 그것 자체만으로 기습벽찬 일이었다. 삼천리 금강산 가운데 뛰어난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는 명산, 금강산!

불교 명승지요, 수많은 선사들이 주석하여 수행했던 곳. 수행자로서의 감회는 감개무량하였다. 금강산의 산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금강산, 이름만으로도 불국토요, 선정에 든 만물상의 기암괴석은 장관이었다.

만약 우리의 남쪽보다는 덜 오염되었지만 선전글귀가 큰 바위에 새겨진 모습은 너무나 흥미로웠다.

이번 순례에서 수행자로서 느낀 소감을 말한다면, 옛 절터를 둘러보면서 새삼 웃을 여유가 했던 점이다. 시대적 사명감이 온 몸으로 밀려왔다. 남북 한동포가 하루 빨리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필연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마저 다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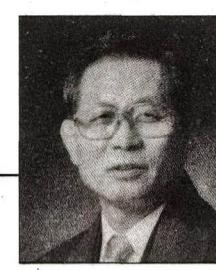
우리가 좀 더 성숙되고 화합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것이었다. 언젠가 통일이 될 그날을 위해 우리가 먼저 큰 마음을 가져야하며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반쪽인 남한에서 회택(火宅)의 세계를 만들어 가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화합하는 마음, 밝고 크고 둥근 마음. 이것이 불교를 수행하는 이, 땅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다.

화합하는 마음, 밝고 크고 둥근 마음. 이것이 불교를 수행하는 이, 땅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다.

밀교교리 2

## 성불의 해제 (2)



효강 법장원장

그러면 밀교에 있어서 이 단혹과 증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가 하면 이를 바 삼겁(三劫), 육무회(六無畏), 십지(十地)로서 설명하고 있다. 즉 우선 구별하여 말하면 삼겁과 육무회는 오로지 차정문(遮情門) 즉, 부정적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단혹(斷惑)의 문제에 대하여 살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하여 십지(十地)는 표면(表德門), 즉 긍정적 입장에서 서서 적극적으로 증리(證理)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부정적 면과 긍정적 면의 양면에서 성불의 해제의 문제를 풀어볼까 한다.

### ① 삼겁사상(三劫思想)

첫째 삼겁사상(三劫思想)부터 고찰(考察)해보면 삼겁사상이란 이른바 소월(所越)의 망집(妄執), 즉 대치(對治)해야 할 번뇌에 대한 단혹(斷惑)의 문제를 풀이한 것인데 그것은 결국 어렵게 해서 삼망집을 조율할 것인가를 논하게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교에서는 겁(劫)을 시분(時分)의 뜻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삼겁이라고 하면 삼대아승지겁(三大阿僧祇)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용이하게 헤아릴 수 없는 무한에 가까운 시간을 뜻하는 용어이다.

그런데 밀교에서는 특별히 겁을 망집의 뜻으로 해석하며 그 망집의 후반(厚薄)에 따라, 주(序), 세(細), 극세(極細)의 삼망집으로 한다. 그러므로 초겁(初劫)은 추망집(序妄執), 제2겁은 세망집(細妄執), 제3겁은 극세망집(極細妄執)이라고 한다. 여기에 대하여『내일경(大日經)』[주심품(住心品)]의 「월세간삼망집 출세간심상」(越出間三妄執 出世間心生)의 일구(一句)를 소가

#### 밀교에서는 겁(劫)을 망집(妄執)으로 이해...

삼겁(三劫)은 추망집(序妄執), 세망집(細妄執), 극세망집(極細妄執)의 삼망집(三妄執)을 의미.

수생문(修生門)의 입장에서 현교의 방편을 빌려서 대치시킨 것.

현교는 삼겁성불이나 밀교는 즉신성불.

「梵云劫跋 有二義 一者時分 二者忘執 若依常途解釋, 度三阿僧社劫, 得成正覺 若秘密釋 超一劫瑜祇行 即度百六十心等 一重序妄執 名一阿僧社劫, 超二劫瑜祇行 又度一百六十心等 一重細妄執 名二阿僧社劫 真言門行者 復超一劫 更度百六十心等 一重極細妄執 得至佛慧初心 故云三阿僧社劫 成佛。」

「법운겁과 유이의 일자시분 이자망집 약의상도해석, 도삼아승지겁, 득성정각 약비밀석 초일겁유지행 즉도백육십심등 일

(疏家)\* 가 비밀안(秘密眼)으로서 해석한 것인데 현교의 삼겁성불(三劫成佛)의 사상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특히 삼겁을 삼망집으로 다루었다는 것은 거기에는 명백히 현밀대변(顯密對辯)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으며 확실히 이것이야말로 소가독자(疏家獨自)의 탁견(卓見)이라 아니할 수 없다.

생각컨대 현교 특히 삼승교(三乘教)에 있어서 성불으로의 수행을 논할 경우 대개가 삼겁성불설(三劫成佛說)을 내세우게 된다. 삼겁성불이라 말할 것도 없이 삼지성

불(三劫成佛) 또는 삼대아승지겁성불(三大阿僧社劫成佛)이라고 지칭되고 있는데 거의 무한(無限)에 가까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성불은 불가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생성불(一生成佛) 또는 즉신성불(即身成佛)과는 전연 반대의 입장에 있는 성불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밀교의 성불론을 보면 수생문(修生門)에서는 삼밀수행을 설하고 있지만 본유문(本有門)에서 말하면 수행유무(修行有無)에 불구하고 우리를 중생은 본래 불인 것이다. 불(佛)이면서도 부처인줄 여실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행의 필요가 거론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성불론은 당연히 즉신성불론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밀교가 단혹(斷惑)의 과정으로서 삼겁을 설하게 되는 것은 결국 수생문의 입장에서 잡시 현교의 방편을 빌려서 대치해야 할 번뇌의 후반(厚薄)에 의하여 주(序), 세(細), 극세(極細)의 삼종(三種)으로 분류하여 삼겁(三劫)이라 말한 것이다.

\* 소가(疏家) : 소가라 함은 선무의 삼장(A.D. 637-735)을 말하며 대일경을 역경한 분이다.

### 만다라 소개5

#### 만다라관

수호국계주 진연 : 음 훔 야 호 사



1. 불공성취불  
2. 금강법 보살  
3. 금강야자 명왕  
4. 대문천왕

복  
비  
로  
서  
비  
로  
자  
나  
불  
나  
불

1. 아미타불  
2. 금강법 보살  
3. 대위덕 명왕  
4. 광목천왕

1. 불이촉불  
2. 금강살타 보살  
3. 흥심세 명왕  
4. 자국천왕

1. 보살불  
2. 금강보 보살  
3. 군다리 명왕  
4. 증장천왕

▲ 본종의 '진호국가불사의궤' 중 '만다라관(曼茶羅觀)'

종조 원정대성사께서는 호국경전인『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한 금강계만다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태장계만다라의 세계 까지 가미시켜 독특한 '호국불사의궤'를 창안하였다. 당시 말해서 대성사께서는 이미 종단의 사상(事相)으로서 만다라를 채택하셨던 것이다.

정각사 김민식 각자

내가 살면서 공덕없이 탑진 치에 업만 잔뜩 짓고 고통받고 허위적 거칠 때 어느날 부인이 절에 가자는 권유에 너나 많이 가거나 하고 한 마디에 거절하였다. 내가 20년을 함께 살면서 어디 마누라 말 한 번 제대로 듣고 살았나 그 뿐인가 그 동안 절에 못 가도록 얼마나 못할 짓을 많이 하였던가 그런 내가 이제 절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처지라 몇 날 며칠을 두고 생각한 끝에 큰 마음 한 번 고쳐 먹고 절에 가지고 하니 부인은 물론이고 딸에게까지 하도 이상하고 신기한 자리 묻고 또 다짐받고 하던 일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한 해마다 되어 가는 구나. 처음 불공할 때는 어찌 오묘하고도 깊고 깊은 부처님 법을 천만분의 일이라도 감히 알까마는 무작정 부처님, 잘못하였으니 모든 번뇌와 고통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서원하며 음마니반메훔 진연을 열심히 염송한 덕분에 몇 달이 지난후 나의 모든 고통이 달빛에 구름이 걷히듯이 차츰 소멸 되는 것이 아닌가. 조금 안정을 되찾고 살만하니 불공을 하여도 무슨 잡다한 번뇌 망상만 가득하여 불공도 잘 안되고 또한 밀교에 대한 의구심만 생겨나서 정말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기나 계시는가 형태도 없이 우주 공간 어디에서나 계신다고 하며 내 마음이 부처라고 하니 진정 알기도 모르겠고 음마니반메훔은 내 가슴에 부처님과 보살을 모셔 내 마음과 함께하니 모든 나쁜 액이 자연 소멸 되는 좋은 진언이라고 하니 사실인지 그리고 내가 지은 악은 부처님께 참회하면 소멸은 되는지 공덕 많이 쌓고 불공 많이 하면 즉신성불이 과연 되는 것인지 등 잡시나마 내 마음을 의심케 한적도 있어 부처님께 참회하지만 과연 내가 살아오면서 남에게 무슨 공덕을 얼마나 배풀고 착하게 살 아왔나를 돌아보니 마냥 삼독에 물들어 악업만 잔뜩 지었

성불합시다.

## 만다라와 총지종의 교상(教相)

총지화 통리원장



우리 종단의 의궤 가운데 만다라에 대한 교상과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진호국가불사의궤'이다. 이 의궤는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하며 금강계만다라가 바탕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종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호국가불사'는 바로 금강계만다라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호국계주진언 「음훔야호사」를 염송할 때 행하는 절인은 바로 금강계 대일여래의 '지권인'을 행하고 있다는 점인데, 본종의 진호국가불사는 곧 금강계만다라를 기본으로 하는 불사임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강계만다라는 '진호국가불사'와 함께 이미 우리 종단의 중심에 존재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진호국가불사' 의궤에서 '만다라관'은 태장계·금강계만다라의 봉안을 의미

생불 곁에 금강보보살, 아미타불 곁에 금강법보살, 불공성취불 곁에 금강업보살을 관하고, 사방에는 사대명왕(항삼세, 군다리, 대위덕, 금강야자)과 사대천왕(지국천, 증장천, 광목천, 다문천)이 호위하고 있다고 관하는 것'이다. 즉 오불(五佛), 사보살(四菩薩), 사대명왕(四大明王), 사대천왕(四大天王)을 관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비로자나불을 위시한 오불(五佛)은 바로 금강계만다라의 오불이며, 사방 사불(四佛)을 친근하고 있는 사보살(四菩薩)은 '37존 금강계만다라'의 16대보살 가운데 중심되는 4보살이다. 따라서 오불, 사보살관은 바로 금강계만다라의 관상(觀想)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금강계만다라는 종단의 '진호국가불사의궤'에 그대로 수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바깥 쪽에서 호위하고 있는 사대명왕과 사천왕은 태장계만다라의 12대원(또는 13대원) 가운데 '지명원(持明院), '최외원(最外院)'에 자리잡고 있는 불보살 호위신들이 있다. 따라서 사대명왕·사대천왕은 바로 태장계만다라의 관상(觀想)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태장계만다라 또한 종단의 의궤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 만다라관

수호국계주 진연 : 음 훔 야 호 사



1. 불공성취불  
2. 금강법 보살  
3. 금강야자 명왕  
4. 대문천왕

복  
비  
로  
서  
비  
로  
자  
나  
불  
나  
불

1. 아미타불  
2. 금강법 보살  
3. 대위덕 명왕  
4. 광목천왕

1. 불이촉불  
2. 금강살타 보살  
3. 흥심세 명왕  
4. 자국천왕

1. 보살불  
2. 금강보 보살  
3. 군다리 명왕  
4. 증장천왕

▲ 본종의 '진호국가불사의궤' 중 '만다라관(曼茶羅觀)'

## 역삼재가노인복지관

### 사업 소개

#### ◆ 노인주간보호소

심신허약, 기동불편 노인을 주간동안 보호 및 교육하여 인간다운 노년생활을 보장하고 부양가족들의 정서적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가정 안정을 도모.

※ 운영시간 : 월~금 오전 10시~ 오후 4시 / 서비스 내용 : 송영서비스, 물리치료, 일상생활서비스, 교육프로그램 등 / 이용료 : 월 100,000원~ 생활보조 및 저소득가정은 상담 후 무료로 이용

#### ◆ 물리치료실 운영

노화로 손상된 신체기능 회복과 향상과 사회적 기능 향상, 정서적 안정을 도모. / 서비스 내용 : 짐질 및 전기치료, 침, 부황 / 운영시간 : 월~금, 오후 1시~5시

※ 화요일은 어려운 독거노인을 위한 방문 물리치료의 날

#### ◆ 경로식당

지역내 어른신들에게 영양가 있는 중식을 제공 / 매주 월~금 운영 / 대상 지역노인 누구나

#### ◆ 은빛교실

일찬 노년을 위한 취미 및 교육 프로그램 / 강좌내용 : 노래·민요교실, 일본어, 단전호흡, 서예, 수족침강좌, 생활영어 / 이용료 : 강좌당 월 10,000원

#### ◆ 글생교실

매주 목, 금요일 13시~14시 / 기초한글과 산수를 가르쳐 드립니다. / 이용료 : 무료

#### ◆ 무료서비스

지역 노인들에게 이미용, 의료서비스 등을 무료로 실시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함

#### ◆ 재가노인복지

지역내 독거노인, 저소득 노인들에게 가정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대상 : 역삼2동 거주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

### 강남고령자취업알선센터

#### 구인처 상담

- 일손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와 개인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 어떠한 직종이든 구직자를 연결해 드립니다.

#### 구직자 상담

- 취업을 희망하는 55세 이상 남,녀 누구나  
- 이력서, 등본, 사진1매 준비하시고 직접 내방하여 상담하세요  
※ 문의:(02)558-8771, 564-9294 월~토까지 접수 가능



강남구 및 인근지역의 노인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설립된 사회복지기관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60-3 / 전화 (02)564-9294, 9297~8 / 전송 (02)558-8772

## 불교개설 7

## 근본불교의 교설③-팔정도(八正道)

정리: 대현(법장원연구원)

팔정도란 팔성도지(八聖道支), 팔정도분(八正道分), 팔정법(八正法) 등으로 일컬어지는 실천 수행의 중요한 덕목을 여덟 가지로 나눈 것이다. 여덟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단수 형태로 불리는 것은 8개의 항복이 한 성도(聖道)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8개가 모두 협력함으로써 인격완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의 정견(正見)이나 최후의 정정(正定)에 있어서도 각 지(支)가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의 일곱 항복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마지막의 정정(正定)이 그 작용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는 다른 7항복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8정도는 4성제에 의해 진단된 인생의 모든 고통을 멀하고, 해탈의 도를 닦기 위해 욕락(欲樂)과 고행(苦行)의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의 가르침이다.

## 1) 정견(正見)

율바른 견해. 지혜의 완성에 필요한 바른 통찰로서, 즉 불교의 율바른 세계관·인생관을 말하는 것이다. 요컨대 그것은 사성제, 연기, 중도에 관한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정견(正見)이 바로 서아만 율바른 실천·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 2) 정사유(正思惟)

율바른 사유. 율바른 사고방식, 윤리를 마음가짐이다. 생각이 정견으로 흘러가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근본경전에 기록된 정사유의 해석은 노여워하는 마음·죽이고자 하는 마음·세속적인

業)을 짓지 않아야 한다.

적극적으로는 타인을 올바르게 지도·계몽하거나,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고 북돋아 주거나, 성실한 말로 남을 대하거나,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을 하는 것 등이 윤리를 언어행위라고 할 수 있었다.

양심적인 윤리·도덕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사회윤리 뿐만 아니라 직업윤리도 여기에 해당된다. 소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축생의 주문(呪文)이나 시주·관상 등 사원 방법으로 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것이다.

## 6) 정정진(正精進)

율바른 노력·수행. 불교의 이상실현을 위해 용기 있게 나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선(善)을 증장하고 악(惡)을 끊어 없애는 사정근(四正勤·四正斷)을 들 수 있다.

## 7) 정념(正念)

율바른 일의처립·살립·마음챙김이다. 념(念)은 지(止·사마타)로도 관(觀·위빠사나)으로도 갈 수 있다. 정념의 수행법으로서는 사념처관(四念處觀)을 들 수 있다. 4념처관은 자기 주의의 모든 것(身·受·心·法)이 부정(不淨)·고(苦)·무상(無常)·무아(無我)라고 매 순간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다.

## 8) 정정(正定)

율바른 선정을 말한다. 지(止)·관(觀)의 결과 정념(正念)의 삶이 지속되어 삼매(Samadhi)에 들어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팔정도 - 불교 실천수행의 중요한 여덟 가지 덕목

## 4성제에 의해 진단된 인생의 모든 고통을 멀하고, 해탈의 도를 닦기 위해 욕락(欲樂)과 고행(苦行)의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의 가르침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출가자에게 어울리는 부드럽고 평화로운 마음·자애로운 마음·더러움을 떠난 청정한 마음을 갖도록 끊임없이 사유하고 애쓰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 3) 정어(正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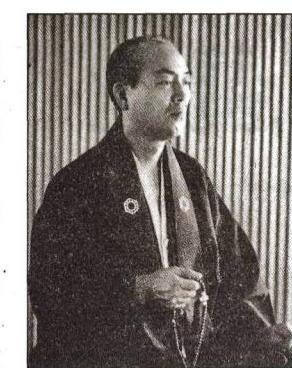
율바른 언어행위. 언어는 사람의 생각과 사물의 특질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지만, 매우 부정확하고 진실을 왜곡할 소지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거짓말, 욕설과 비방, 부정한 목적을 위해 꾸며내는 말, 순간시키는 말, 중상이나 모략 등의 구역(口

## 4) 정업(正業)

율바른 행위. 신체적 행동으로서 타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살생] 재물을 훔치거나 부정한 행위[사임]을 삼가고, 애호·시여자선·성도덕을 지키는 등의 선행(善行)을 하는 청정한 삶을 말한다.

## 5) 정명(正命)

율바른 생활. 의·식·주를 법에 맞게 구하는 것으로 10선계(善戒)에 의한 생활이다. 다시 말해서, 생활수단을 바르게·하여 규칙적인 습관을 기르고



## 육바라밀의

## 실천과 생활화 8

법공(만보사 주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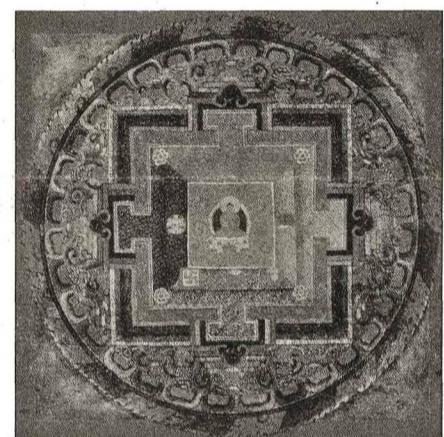
팁하는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인과법으로 본다면 현실의 가난은 결코 우연이나 운수라거나 팔자탓으로 미를 것이 아니라 진리로 바른 청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인과법은 텔끝 만큼도 어긋남이 없는 만고불변의 철칙인바 실제로 현실 가운데 역력히 나타나 보이건만 어리석은 중생은 각자 자신이 어리석은 만큼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돈이나 음식이나 기타 어떤 것이라도 받았을 때마다 반드시 깊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 필연지사이고, 더디고 빠른 차이만으로 끊임없이 발생시켜야 하는 물질이원(物心二元)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탐심을 없애는 것이 가장 큰 복덕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시대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과거 50년대·60년대 이전에 견주면 우리뿐아니라 거의 모든 인류의 생활이 과학과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물질적 풍요가 비교가 안 될 만큼 향상되었고, 또한 향상으로에 있다지만 사람들의 가난과 고통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이점 그 원인과 처방법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하고 그 해결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종조님 말씀에 “중생은 탐심 때문에 못살고 고통받는다. 탐심으로 인해 모든 죄를 짓게 됨으로 탐심 없애는 것이 가장 큰 복덕이 된다.”고 하신 말씀을 깊이 익히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실로 우리 중생들이 무시숙세로 지어 쌓은 업 가운데 탐업(貪業)이 가장 크기에 삼업(三業·貪·瞋·癡)중에서 탐업이 가장 먼저요 육바라밀(六波羅密)중에서도 보시바라밀이, 첫째인 것을 보더라도 탐업이 가장 많이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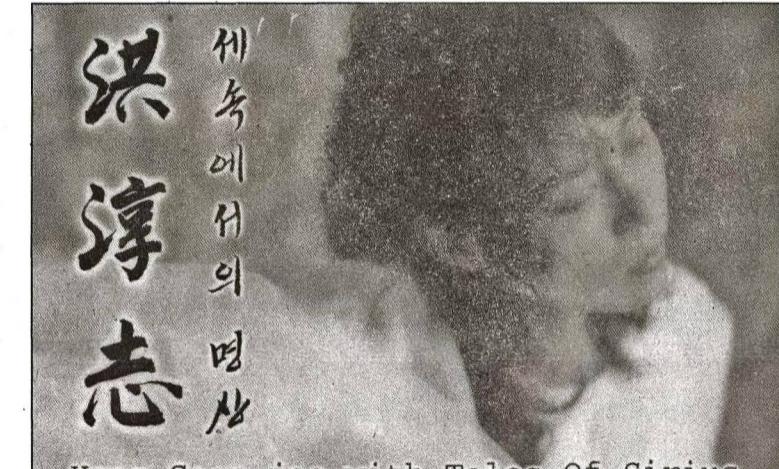
내것이라도 아껴 인색하면 탐업이 된다고 했을진대 하물며 남의 것을



▲ 별존 만다라의 하나. 중존(中尊)이 석가모니불이 금강계 만다라이다.

계만다라', 대일여래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존상은 본존으로 삼고 있는 '별존만다라' 등이 있다.

결국 만다라는 신앙의 대상이자 관법의 대상으로서 불(佛)의 깨달음의 세계이며 동시에 중생이 즐득해야 할 세계이다.



Hong Soon-je with Tales Of Sirius

# 홍순지

with  
Tales Of Sirius

## 앞면

- 빈봄이 풀임없이/부용영관(1485~1571) 선시(03:07)
- 도량 의 백일홍/백영운 작사(04:26)
- 문수사 /대감탄연(1070~1159) 선시(03:55)
- 산거 /나옹혜근(1320~1376) 선시(02:53)
- 구름 흐르나 하늘은/면양언기 선시(1절) · 백영운 작사(2절) (03:48)

## 뒷면

- 사바의 인연/백영운 작사(04:26)
- 노귀자/백영운 작사 (04:58)
- 청산은 나를 보고/나옹혜근 선시 (03:22)
- 유가야 /경허휴경(1520~1604) 선시 (02:53)
- 자하문 (02:16)

## 가격

Tape 3,000원 / CD 10,000원

신서사이저, 시퀀싱, 어쿠스틱기타 / 백영운  
해금 / 김승택

가야금 / 정우진, 이현범

바이올린 / 채운영 · 비올라 / 이은정

엔지니어, 프로듀서 / 백영운

사진 / 노현혜(mono studio)

녹음 / G STUDIO

Music Design and digital recording

**G MEDIA** tel, fax (0561) 775-4888

<http://user.chollian.net/~studiodg>

E-mail: studioG@chollian.net

여행 테마  
특집

## 여름을 출!

## 기차로 떠나는 '심신의 휴식'...

## 실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기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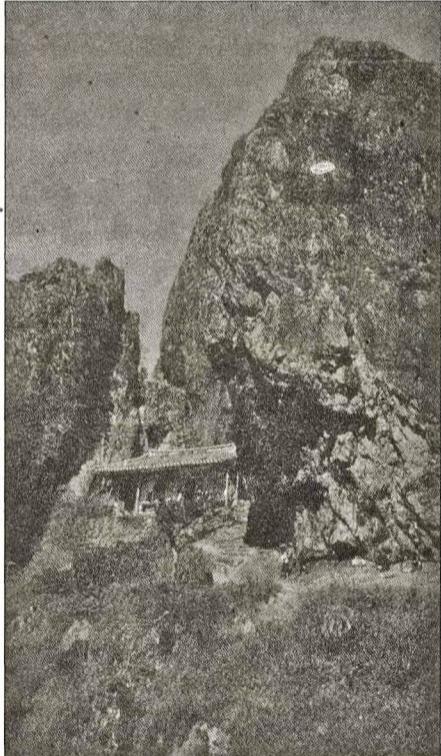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의 삶, 올 여름휴가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것 같다. 경제적 어려움도 이유겠지만 무엇보다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다. 더욱 바빠진 삶에서 조용히 되돌아보는 휴식의 시간마저도 없다. 그러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마음과 몸 미처 병들 수는 없다. IMF라 하여 정신미저 쇠약해질 수 없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일천 여름휴가를 떠나보자.

대자연과 함께 호흡해보는 시간, 신록의 푸르름 만큼이나 우리의 정신을 푸르게 단장하자. 자연을 벗삼아 일상의 때와 잡념, 근심을 모두 벗어 던지고,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자. 많은 경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적은 경비로 떠날 수 있는 '기차여행'으로 오랜만에 자연의 상큼함을 느껴보자.

기차로 떠날 수 있는 여름휴가지를 몇몇 소개한다. 자료는 철도청의 기차여행 홈페이지에서 참고했다. (<http://www.korail.go.kr/train/index.html>)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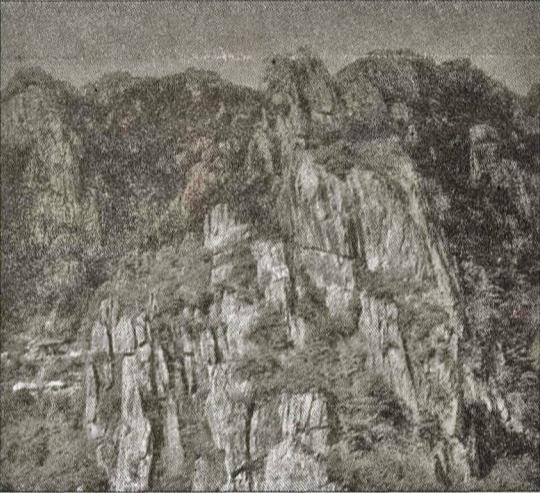


▲ 금관산은 등산코스로 유명하다.

## 대둔산과 개태사역

남원역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의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유서깊은 명고이다. 6백년 세월동안 여려 차례 중수(重修)와 개축이 있었지만 광한루를 중심으로 한 여러 정자와 누각들이 자리잡은 6,600여평의 경내는 미음을 추스릴 수 있는 좋은 명상처로 할 수 있다.

남원역은 전라선으로, 전주와 순천 사이에 있다. 버스를 타고 전주나 순천에 와서 남원까지 열차를 타고 가는 것도 또 다른 여행맛이 될 것 같다.



▲ 대둔산의 절경

## 고수동굴, 온달산성과 단양역

중앙선을 타고 충북 단양역에 내리면 단양팔경의 경승지가 우리를 기다린다. 단양 지역에는 읍내 8~12km로 범위안에 유명한 단양팔경이 모두 있다.

영춘면에는 온달산성이 고구려의 지상을 느끼게 한다. 매포읍 영천리의 측백수림은 여름철 삼림욕으로도 그만. 대자연의 숨소리가 절로 들린다. 대강면 고거리의 고수동굴, 노동리의 노동동굴, 천동리의 단양천동굴 등 석회암 동굴을 볼 수 있다. 동굴 안의 찬바람이 등줄기에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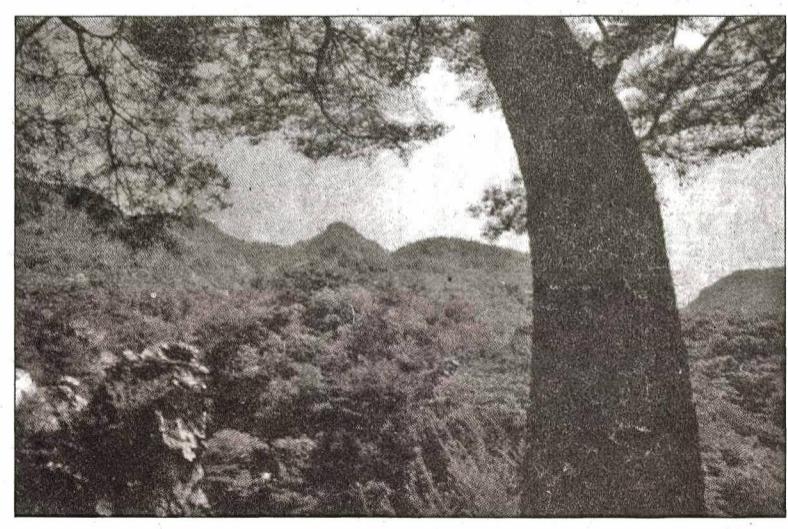
충북 단양으로 가는 관광코스행 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중앙선의 열차를 타고 단양역으로 떠나 보는 재미도 솔솔하다.

## 소요산과 동두천역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동두천에는 소요산, 한탄강 등 명소가 많아 서울 근교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동두천에서 6km로 정도 위치해 있는 소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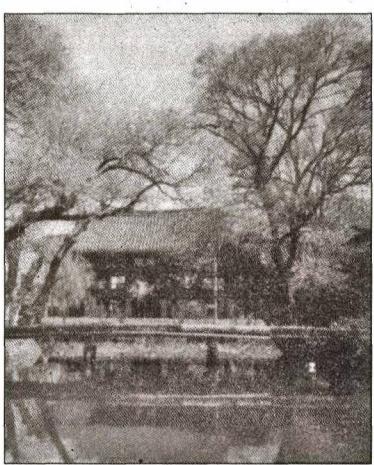
높게 치솟은 기암괴석, 가파른 절벽이 가슴 깊은 속을 용솟음치게 한다.

경의선을 타고 동두천에서 내리면 소요산 입구까지 가는 시내버스가 있다. 이 소요산에는 백운암과 백좌암이 산 유구에 위치해 있다.



▲ 동두천시 북쪽에 위치한 소요산.

## 광한루와 남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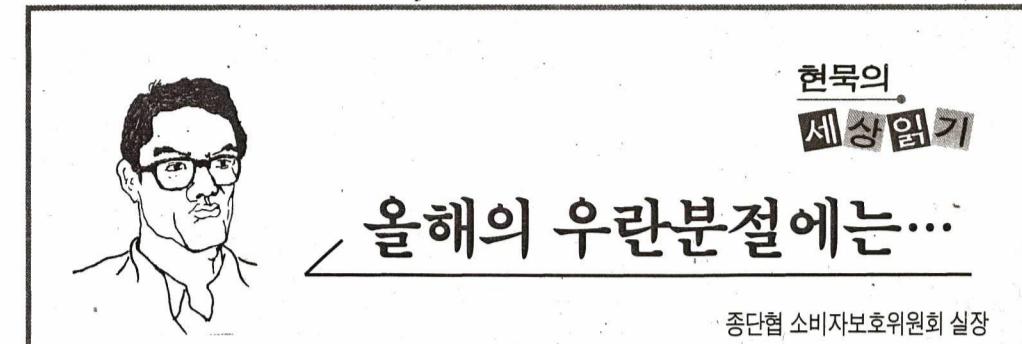
▲ 광한루 누각과 연못은 세파에 찌른 심신을 잠시 불들어 둔다.

성춘향과 이몽룡이 사랑을 나누었던 광한루!

## 화초마을의 산동역

화동은 하회마을로 유명하다. 풍천면 하회동의 하회마을은 예로부터 유림의 고장으로 향토문화의 중심지이며 옛조상의 일을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곳이다.

이 마을은 풍산 류씨가 대대로 살아왔던 전형적인 동족부락으로써 사대부가로부터 가락집(하층민집)에 이르기까지 130여호의 대소 고가들이 보



## 올해의 우란분절에는...

종단협 소비자보호위원회 실장

면 충분해요. 그냥 편히 길 떠나세요."

늘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당신의 방, 당신의 자리에서 이제 뜬 구름 한 조각같은 생사를 나누신다. 무심히 제절로 도는 놀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금강경, 독송소리가 방안을 넘어 집 곳곳에 배인다. 바깥은 봄이었다.

어머님은 화장을 삽어 하셨다.

"내가 이 다음에 죽더라도 화장은 하지 마라."

그런 '어머님께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그러지요."

어머님의 병세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되었을 때부터 속으로 화장을 결정 짓고 있었다. 마지막 모설 산도 없거나와 인연을 다한 육신이 대지를 차지하고 있어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뜻을 거스려야 나 또한 언젠가 당신을 훑어갈 때 남은 이들에 의해 태워질 것이기 때문에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고집으로 인연 다한 어머님 육신에 불을 넣었다. "어머니, 불 들어가요."

어머님 고향은 함경도였다. 해방 몇 해 전에 남선향 서울에 계신 이종오빠집에 오고기다가 그냥 서울에 살게 되었다. 아버님은 충남에서 태어났으나 어릴 적 고향을 떠나 노동으로 조선팔도를 떠도신 분이다. 한국전쟁 직전 두 분이 만났다. 험한 시절, 갖은 고생을 모두 겪으신 분이다. 적법하였다나 할까, 인생의 부침 浮沈도 있긴 있었다. 남의 부러움을 받는 호사도 겪었지만 그 기간은 그 분들의 인생에 있어 지극히 짧았다. 어머님은 어머님보다 7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 분들의 살아온 얘기를 기록으로 남길려던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궁무진했을 당신들 시대의 이야기.

연극이 끝나서 무대의 막이 내려오듯 이승의 인연이 다해 서서히 잡기는 눈꺼풀 밖으로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점차 가려지는 순간을 맞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속에 품었던 말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들려 주고, 문밖에 대기중이던 길손님과 함께 틀틀 면길 떠날 수 있는 것도 큰 복이리라.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이들도 얼마나 많은가.

우란분절이 다가온다. 선망부모의 천도를 비는 날이다. 앞서 간 분들의 애듯한 사연을 각박한 세월탓에 잊고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모처럼 그리움을 담아내는 날이다. 인연있었던 아니든 앞서 간 모든 이들의 천도를 빌어야겠다. 그 공덕으로 살아 있는 모든 중생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존되어 있다. 여기에서 조선조 유성룡 선생의 생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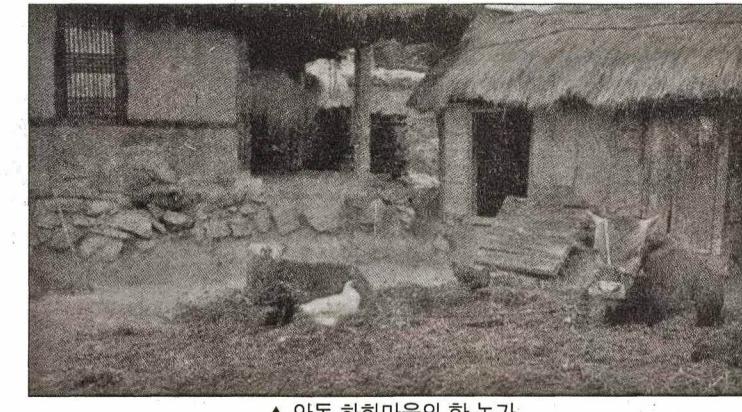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한때 들렸던 곳으로 유명. 또 인동 시내의 법흥동 7층석탑을 비롯, 안기동의 석불좌상과 혜자비, 안맥동의 이운덕 생가가 있고, 토산면 토계동에는 유명한 이황 선생의 도산서원이 있다. 시원하게 펼쳐진 안동댐도 있다. 안동역은 중앙선으로 영주역과 영천역의 중간 지점에 있다.



▲ 남한강을 끼고 있는 단양 영춘면의 온달산성

충주시내에서 서북쪽으로 3km로 유서깊은 명소로 손꼽히는 단군대가 있다. 단군대는 원래 대문산으로 불리던 산으로 벼랑 아래로는 남한강과 달천강이 합류되는 곳이며 산세가 평坦하면서도 기암절벽에 우거진 숲이 장관을 이룬다.

충주역은 청주와 삼단으로 연결되는 충북 선에 있다. 충주행 고속·시외버스를 바로 이용해서 가는 것보다 대전이나 청주까지는 충북선 열차를 이용해보는 것이 훨씬



▲ 안동 하회마을의 한 농가

## 단금대와 충주역

여행의 맛이 있을 것이다. 충주에는 그 외 충주호, 월악산 등이 있다.

## 연중캠페인

##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나이갈 방향 ④

자성학교운영 의사타진 필요, 전폭적인 지원 뒷받침돼야



지난호에서 자성학교설립에 대한 지역의 기초조사와 함께 전국 서원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고 제안했다.

다시말해서 자성학교운영을 희망하는 사원이 있는지, 있다면 운영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희망하는 사원을 대상으로 토론회와 설명회를 갖는 것이다. 이 문제는 기존 자성학교의 정단점을 토대로 더 좋은 모델을 창출할 수 있고, 정보를 상호교환하여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운영방법과 기술을 쉽게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권하고 싶은 방안이다. 일과성의 토론회를 위한 토론회가 아닌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청사진이 없으면, 21세기에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절박한 위기감과 중대성 인식이라는 절저한 자각 위에서 '자성학교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는 분명히 마련되어야 한다. 어린이·청소년포교 문제만큼은....

또 프로그램이나 운영방법에 있어서 사원간 상호교환 형식의 법회나 합동 법회를 주기적으로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이를 기반으로 교구간에 상호방문 법회나 합동법회를 통

해 취약해질 수 밖에 없는 사원단위 자성학교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도 있다. 또 매년 열리는 어린이·청소년 수련법회'를 일과성으로 끌낼 것이 아니라, 교구단위의 법회를 통해 자성학교의 지속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자성학교를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갔을 때, 가능한 것이다. 자성학교 활동의 가운데 하나로서, 또 그 연장선에서 전국단위의 '수련법회'가 바람직한 것이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사원단위의 자성학교운영에 가장 큰 어려움은 지도교사채용과 재정부족에 있다. 자성학교와 관련된 모든 경비와 인력문제는 종단의 중앙기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어린이·청소년포교 문제만큼은....

2000년대의 포교는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에 달려 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종단의 미래는 기약하기 어렵다.

## 신행수기

## 쉼없이 정진하는 생활

국광사 정심화 보살



이 일어났다. 아픈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이다. 그 지긋지긋하던 두통도 사라지고 어지러운 증세도 말끔히 없어졌다. 부처님 은혜로 몸이 해탈되니 부처님 일 드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서원하고 정진하면 정밀이지 안 되는 일이 없었다. 정말 내가 부처가 된 기분이 들 정도이고 피곤하고 힘든 것도 몰랐으며 절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솔선수범했다. 또 대중 보살님들도 잘 따라주어 회장의 직책을 맡게 되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니 가정도 해탈이 잘 되고 서원당에도 날로 신교도가 입교되어 교화가 발전되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절에 가서 불공을 한 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어느 보살님의 인도로 절에 따라 가게 된 것이 밀교에 입교

## 병고 해탈을 위해 입교...

## 『심신수양』의 수행정진으로 변화

하게 된 까닭이다.

절에 가면서도 생사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이 준 명에 있겠지" 하면서 마음 속으로 큰 위안을 삼았다. 몸도 잘 가누질 못할 정도의 고통 속에서도 스승님으로부터 법을 받아 3자성 불공 중에 법문이 왔다. 스승님께서 불공 시작을 알리는 죽비를 치기만 하면 육자진언인 음마니반메훔이 불당 어리로 보였다가 끝나는 죽비를 치면 보이지 않았다. 불공하는 것이 두렵고 속은 바짝바짝 탔다. 부처님이 이제 법문을 주셨으니 정신차려 용맹만 세우면 몸이 낫는다는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49일 불공에 들어가 거의 회환이다 되어갈 무렵 어느날 꿈을 꾸었다. 정말 신기한 꿈이었다. 사십 년이 지난 지금도 어제 밤에 꾼 것처럼 너무나 기억이 생생하다. 내가 사택에서 경전을 양손에 가득 들고 서원당에 들어가니, 스승님이 어떤 여자와 가사장을 만들고 계셨다. 그래서 나도 같이 도와 주고 있을 때, 다리를 질룩거리는 낯선 남자가 저 쪽에서 나를 손짓하며 불렀다. 가기 쉽다 해도 자꾸 오라해서 당황하여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전수님께서 화가 나 옆에 있던 뜻 그릇을 그 남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빨이 부러지고 얼굴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그 남자는 도망치듯 사라져 버렸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날 아침, 거짓말 같은 일

## 불교수행이야기

## 존경받던 행자승, 비구승 되어 쫓겨나다

김홍배 (법장원)

옛날 중국에 수행 잘하고 윗사람 공경을 잘하는 행자승 한 명이 있었다. 그는 다른 행자승이나 비구승들에 비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독 신도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다. 그는 윗사람을 공경할 줄도 알았고 신도들에게는 항상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다. 어느 누구를 함부로 대하거나 하대하는 경우가 없었다. 자연히 사람들은 그를 따랐고 행자이지만 큰스님보다 더 공경받았다. 세월은 흘러 그 행자승이 모든 수련과정을 마치고 바구가 되었고, 나중에는 그 사찰의 중심되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신도들은 줄어들었고 분란은 그치지 않았으며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높아만 갔다. 이에 다른 많은 스님들이 걱정하였다. '한때는 많은 존경을 받아 신도를 볼고 다니기도 했는데, 이제와서는 도리어 그로인해 분란이 끊이질 않으니 큰일이다.'

그 행자승에 대한 비난과 원망이 일어나게 된 사연은 이러했다. 행자로서 둑목허 수행에 전념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던 심성은 어느덧 악으로 변했고, 깍듯하였던 예의는 변하여 어느날부터 신도들 위에 군림하기에 이르렀고, 좋아하지 않는 신도나 스님들을 차별까지 하였다. 나

이가 많든 적든 신도들을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니, 신도들은 "아부리 삼보를 공경하라 하지만, 저런 무례하고 스님같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섬길 수 없다. 신도들의 원성은 높아갔고, 급기야는 주지스님이 그 비구승을 부르기로 이르렀다. "아무래도 자네가 이 절을 떠나는게 좋을 것 같네.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분란의 책임은 면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했다. 이에 그 비구승은 "내가 왜 나가야 합니까. 신도들이 비난하는 것은 자기들 뜻에 고분고분하지 않으니 나를 시기질투하여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보를 공경하지 않는 신도가 무슨 불제자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못 나갑니다." 그 비구승의 저항은 완강했다. 그러나 주지스님은 그 비구승을 절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본인에게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하심할 줄 모르고 신도나 모든 사람들에게 군림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생구제의 사명감도 삼보의 자격도 없고 스님으로서 공경받을 가치도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 주지스님도 스스로 물려났다. 제자를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이야기를 통해 종조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스승의 사명과 자세'를 되새기게 된다.

## 건강상식

## 손발저림증



김내과의원 원장 김옥희

외래 진료중 흔히 접하게 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손발저림이다. '손발이 얼음처럼 차다.', '남의 살처럼 느껴진다.', '바늘로 수시로 찌릿찌릿하다.' 등으로 표현한다. 유독 우리 나라에서는 손발저림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혈액순환 장애로 생각하고 깊이싼 노혈관 순환제나 한약을 복용하거나 침을 맞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혈액순환장애로 저림증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

다. 손발저림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말초신경질환과 비말초신경질환으로 나눌 수 있다.

말초신경질환의 가장 흔한 예로 손목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좁아져서 신경이 눌려 손저림이 나타나는 손목터널증후군이 있다.

직업적으로 손과 손가락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잘 생긴다. 당뇨병에 의한 말초신경손상은 손과 발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며 만성신부전증에서도 요독에 의한 신경손상을 보인다.

다. 알코올 중독의 경우 비타민 결핍으로 손발저림이 수반된다. 그 외에도 갑상선질환, 종금속중독 등 원인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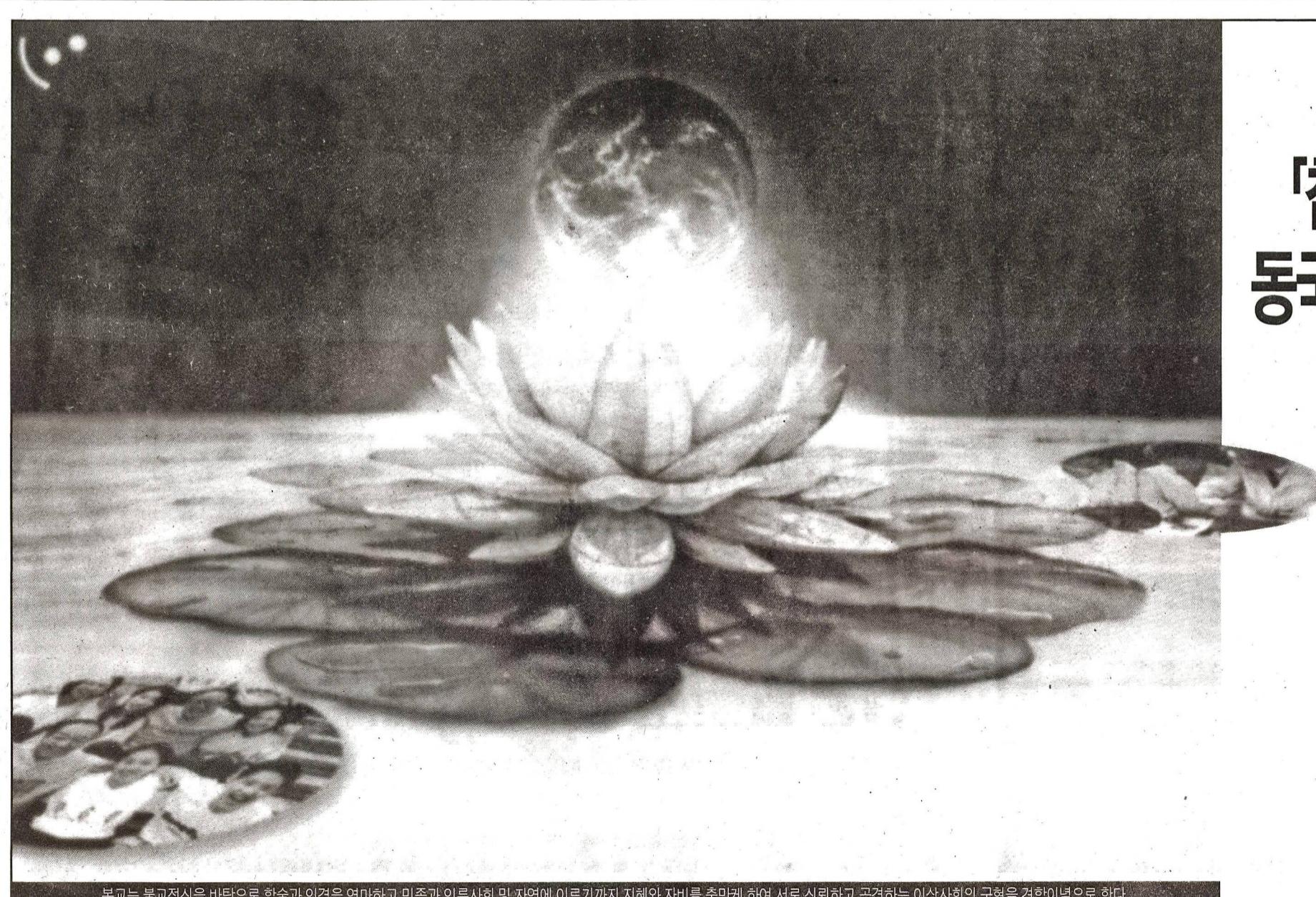
비말초신경질환으로는 목 디스크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손비타민과 손 등의 저림이 심하다. 뇌시상하부 출혈이나 뇌경색이 있을 때 손발저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각장애나 근력약화로 진행될 수 있다.

병적인 손발저림 외에도 히스테리증상이나 불안증 환자에서도 손발저림은 흔히 나타난다. 이때는 기분에 따라 증상차이가 심하고 균형변화가 없으며 기분이 좋아지면 손발저림은 저절로 좋아진다.

손발저림은 이와같이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혈액순환 장애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환자에서 자기진단하여 필요없는 약물을 복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원인 분석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김내과의원 (053)792-5115

## 광고접수 [02] 508-8933



2006년이면 100년

## 「참사람 열린 교육」의 도량, 동국대가 새로운 100년을 업니다!

세찬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장명등(長明燈)의

정신으로 한세기를 염여온 동국대학교 -

새시대를 밝힐 무한한 가능성의 에너지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대학은 등불입니다. 사람은 등불입니다.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 교계 뉴스

##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 참 ‘나’를 찾는다” BBS ‘현대인을 위한 깨달음의 강좌’ 100일 법문



▲ 불교방송 성낙승 사장(오른쪽)과 제작담당 박상필 PD

‘불교방송에 귀를 기울여 보자’, 요즈음 불교방송의 한 프로그램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다른 아닌 ‘현대인을 위한 깨달음의 강좌’(박상필 PD, 월~토 밤11시5분~0시45분 방송)가 바로 그것.

4월 19일부터 방송되었던 이 프로는 지난 17일 방송이 끝났으나, 불자 청취자들의 요청으로 지난 19일부터 100일 간 재방송을 시작하게 됐다. 재방송은

불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청취자들까지 “이번 프로그램이 자신들의 신행활동이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내용의 전화와 서신을 보내면서 “처음부터 다시 듣고 싶다”는 강력한 요청에 따른다. 이번 프로그램은 특히 불교를 너무 어려운 종교로 인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한 ‘정토회 법륜스님’의 법문내용이 바로 불자들의 귀에 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다. 전국 각지에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관심을 불러 일으켜 미국 뉴욕의 한인방송인 ‘리디오 서울AM 코리아’에서 방송 의사를 전해왔다.

또한, 일반적으로 청소년 청취자가 많은 심야 시간대에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연령층에서 호응을 얻었다는 점에서 폭넓은 청취자 확보와 종교방송의 제역할이라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작담당 박상필 PD는 “단지 교리만을 강의하거나 무작정 청소년만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정신적 빙곤과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삶의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었다”고 제작의도를 밝혔다.

한편, 불교방송은 이 프로그램의 재방송과 관련해 지난 7일 12시 ‘기자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례적으로 불교방송 성낙승 사장이 직접 자리에 함께 하여 제작자들을 격려하고, 교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총지총보 김홍배 편집장이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금강산 순례를 마치고… 2

## 금강산은 바로 불국토였다



혜정사 주교 수증원 대전수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명산, 선사들의 수행처! TV로 라디오 방송으로 들고 들어서 조금은 짐작했던 금강산!

금강산 순례 첫째날, 만물상 코스를 답사했다. 금강산의 여러 봉우리들은 불보살의 명호를 지니고 때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반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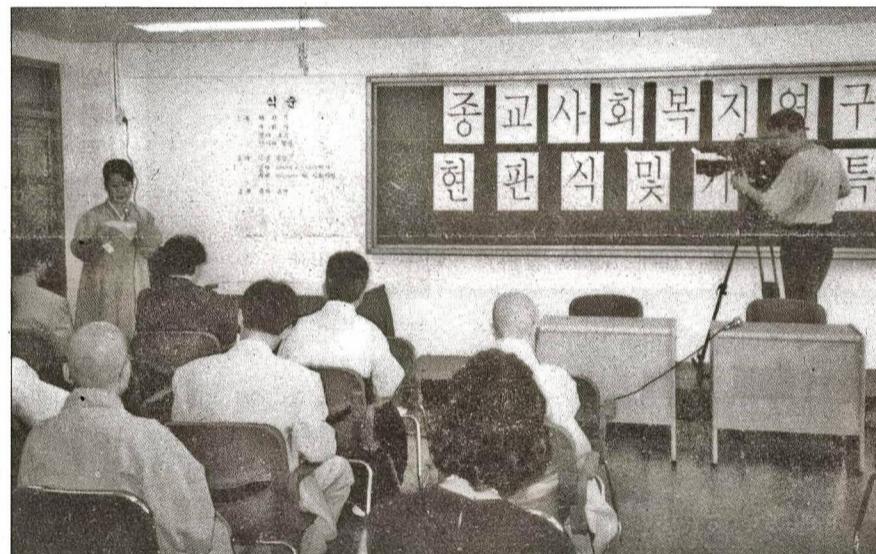
그러나 언제쯤 이 아름다운 금강산의 자연 경관을 살피하고 긴장된 분위기가 아닌, 남과 북의 국민들이 동족애를 느끼며 정다운 인사를 나누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착잡했다.

길이 80미터나 되는 구룡폭포에 당도하니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에 새겨졌다는 ‘미륵불’(彌勒佛)의 장엄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한 글자의 길이가 무려 13미터나 된다고 하였다. 서 있는 그 자리가 불국토의 디름 아니었다.

먼 옛날부터 선사들이 선정에 들었던 이 터전에 머지않아 부처님의 자비로 동족간에 서로의 마음을 녹여 평화와 화합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북한동포들의 어두운 얼굴들이 너무나 안스러워 마음이 편치 않았다. 금강산 구경보다 북한동포들에 대한 애�향이 가득했던 순례일정이었다.

## 사회복지사업에 ‘정신적 개념’ 도입, 전문 연구기관 설립

『종교사회복지연구소』, 지난 6월 12일 본 종 통리원 2층에서 현판식 가져



▲ 「종교사회복지연구소」가 지난 6월 12일 본종 통리원 2층에서 현판기념식을 가졌다.

성악가 홍순지씨 찬불가 CD, 테입 출반



Hong Soon-ji with Tales Of Sirius

▲ 선과 명상을 주제로 한 찬불가 ‘세속에서의 명상’ 음반

앨범에서는 그러한 분위기의 곡과 가사를 지향하고 불교 본래의 정서와 뜻을 살리는데 역점을 두었다.

홍순지씨는 계명대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이탈리아 레스피치 국립음악원에서 디프리미노 수업을 마친 정통 성악가이지만 성악특유의 힘을 자제하고 명상적이며 초연한 자세로 불교정서에 잘 어울리는 창

법을 찾아내어 맑고 편안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

홍순지씨는 본종 국광사의 교도인 흥보살의 딸님으로 국광사합창단을 지휘하는 등 음악활동에 한창이다. 현재 불교사합창단지휘자로 활동중이며 동국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경주가고향, 음악 스튜디오도 별도로 두고 있다.

(스튜디오지 0561-775-4888) 인데 넷츠페이지(www.cholian.net/~studion)를 통해 대표곡들을 감상할 수 있다.

### 살며 생각하며

중국 주나라 때 복자천이란 사람이 지방 현령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정사(政事)를 둘보지 않고 매일 놀기만 하는 듯했다. 그렇지만 그가 다스리는 고을에는 그래도 아무 탈 없이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었다.

그가 일기를 마치고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고, 후임으로 무마기라는 사람이 부임했다. 그는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어서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다. 그런데 고을에는 항상 분란이 그치질 않았고 백성들의 삶은 궂집해졌다. 무마기는 생각 못해 복자천을 찾아가서 물었다. “그대는 매일 놀기만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고을은 평안하고 백성들은 참으로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소. 그런데 나는 밤낮없이 일해도 잘 다스려지지 않으니 도대체 그대에게 무슨 비결이라도 있는 것이오?”

그러자 복자천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래사람들을 믿고 그들에게 과감하게 일을 맡겨 정사를 처리했으나, 그런데 그대는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직접 하려고 하니 힘이 들 수밖에 없고, 또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이오. 더구나 일일이 간섭하며 점검하고, 사소한 것까지 보고받고 일의 내용을 알려고 하니 당연히 사람들은 지치지 않겠소. 아래사람을 진정으로 신임하여 일을 시키면 결과 성과를 달해 일에 임합니다. 그러나 시켜놓고도 믿지 못하여 일일이 간섭하면 자기 능력의 절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오. 당연히 일이 잘 풀릴 수가 없는 것이오.”

관장, 성덕스님, 남금란 목사, 방정영 신부, 정인덕 교수, 강침순씨 등 24명이다. 범종교적으로 교수, 복지관련 실무자, 승직자 등이 모여 설립된 연구소이다.

한편, 동 연구소는 주로 현장활동과 이론 연구의 상호연계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교수, 복지관련 실무진, 성직자 등 복지 전문가들이 범종교적으로 만들어낸 모임이다. 주요사업으로 월례연구모임을 비롯해 연례세미나, 계간지 발행, 워크샵, 종교계 복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운영위원은 이해숙 소장을 비롯해 김경철 교수(중앙승가대), 현각스님(원주 성불원), 상덕스님(옥수사회복지관

관장), 성덕스님, 남금란 목사, 방정영 신부, 정인덕 교수, 강침순씨 등 24명이다.

한편, 동 연구소는 지난 6월 12일 본종 통리원 건물 2층에서 연구소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1부 현판식, 2부 기념특강, 3부 축하연으로 진행됐다. 2부행사에서는 미국 캔스ас대 사회복지대학 에드워드 캔다 교수의 ‘영성(Spirituality)과 사회사업’을 주제로 기념특강을 했다.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만을 돋는 것이 복지라고 여겼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들

▶ 종교사회복지연구소 이해숙 소장  
“사회복지사업은 이제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고 강조한다

이 많이 남아 있죠. 그러나 진정한 복지는 사회구성원 전체가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적 세계의 복지이념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물질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이 균형있게 펼쳐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외로움과 불안, 미래에 대한 공포, 정신적 빙곤감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치유가 바로 정신적 세계의 복지이념입니다. 그리고 저는 복지란 것은 이제 그린민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지의 대상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물질 이외의 정신적인 복지의 지원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신적 가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회복지는 곤란합니다. 또한 ‘물질적 복지’에서 ‘정신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 회원간의 활동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 우선 월례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질

◆ 앞으로의 계획은?  
◆ 우선 올해에는 주제발표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계간지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월례발표회는 이론적인 면과 사례, 양면에 관한 주제 발표회를 할 생각입니다. 내년부터는 1년에 1~2회 정도 세미나를 열 계획입니다.

### 〈약력소개〉

-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불교사회복지학과 출강
- 불교사회복지정보센터 개원준비 실무팀장 역임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석·박사학위 취득
- 미국 캔스اس대학 방문연구

### 〈논문〉

- 석사학위논문 : ‘불교사회복지론의 기초적 연구’, ‘임상 사회복지의 Spirituality 개념화를 위한 연구’
- 박사학위논문 : ‘불교사회복지학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
- 번역서 : ‘불교사회복지학’ 등
- 기타 논문 10여편

## 사회복지에 정신적 개념 도입, 『종교사회복지연구소』 개소

'종교사회복지연구소 이혜숙 소장'

◆ 지난 번 현판식행사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행사를 마친 소감은 어떻습니까?  
◆ 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동기가 있을 텐데요?  
◆ 그동안 사회복지의 활동은 양적인 측면이 주로 강조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질적인 측면을 돌아볼 때입니다. 사회복지에 정신적인 가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가 최저생계라는 측면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존재의 가치, 즉 삶의 가치, 정신적인 가치도 동시에 충족시켜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동기이며, 설립취지입니다.  
◆ 연구소를 설립하기까지 많은 활동들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해오셨습니까?  
◆ 1년 전부터 본 연구소의 설립을 구체화해왔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분

들과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사회복지에 정신적인 측면’을 가미시켜야한다는 필요성에 모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은 주로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4일에 처음으로 종교사회복지심포지움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 ‘정신적 세계’(SPIRITUALITY)의 복지이념주제, 대안마련과 연구활동이 목적.

◆ 주제발표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 계간지 발행.  
내년부터 매년 1~2회의 세미나 개최

사스 대학의 사회복지학부 교수인 에드워드 R. 캔다 박사가 이끄는 학회의 워크숍에 참여한 경험과 연구활동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3년 동국대학교에서 캔다 박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교수님의 독려가 컸습니다. 캔다 박사님을 이번 연구소 현판 기념특강에 모시기도 하였습니다.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체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합, 운영하는 대표기구가 없다고 보여지는 데,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 상호간 정보교환 차원에서도 협의회 성격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복지관련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단체도 없고, 지원과 대안을 제시해주 는 곳도 없다고 봅니다. 협의회에서 연구회를 두어 프로그램이나 지원방안을 연구토록 하고 산하에 사업별, 시설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꾸준히 연구해가면서 지원하고, 운영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귀 연구소에서 주창하는 ‘정신적 세계(SPIRITUALITY)’를 고려하는 복지이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다?  
◆ 그리고 이해숙 소장님의 복지관

에 사업별, 시설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꾸준히 연구해가면서 지원하고, 운영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신적 가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회복지는 곤란합니다. 또한 ‘물질적 복지’에서 ‘정신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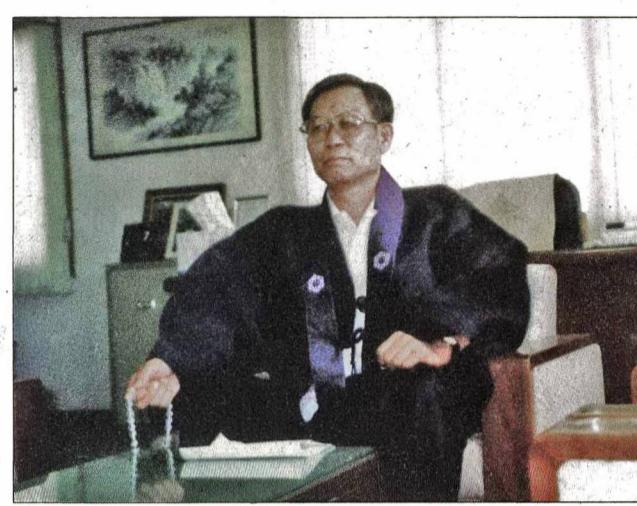
◆ 회원간의 활동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 우선 월례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질

## 인물탐방

## 종단의 복지사업 전문화, 체계화를 위한 첫걸음

불교총지종사회복지법인 이사장 효강 대종사

이번에 설립인가를 받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 효강 대종사를 만나 복지법인 설립과정과 사업 계획에 대해 고견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 효강 이사장은 종도들의 큰 관심과 후원을 강조하였다.

## ■ 법인설립까지의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종단이 복지법인의 필요성을 느끼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3년 전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사회복지위원회와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우리 종단이 전담하게 된 동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종단차원에서 사회복지사업을 꾸준히 해왔지만 이를 더욱 극대화하고 지속적이며 더욱 전문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지난해 8월 승단총회에서 복지법인설립을 발의하게 되었죠. 승인을 얻는데 근 1년이 걸렸습니다. 행정상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는데 까다롭기는 했지만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 ■ 복지법인 사무국을 어떻게 운영해나갈 생각입니까?

그간 종단의 재단법인 불교총지종유지재단 사무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던 복지관련사업을 복지법인 사무국에서 전담토록 하는데 우선은 두겠습니다. 또 사무국에서 복지사업의 청사진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당장에는 강남구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와 무의탁노인·실직자 무료급식, 청소년법회 등 그간의 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 또 종단 산하의 전국 사원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갈 생각입니다.

## ■ 불교 종단으로는 3번째 복지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여타 다른 복지법인이나 단체와 달리 중점을 두는 사업이 있다면?

분단된 남북간의 이질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의 갈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동서독이 통일 전에 왕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의

갈등과 후유증은 상상보다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래가 없는 우리 남북간의 사정을 고려해 통일 이후의 이질감 해소를 위해 우선 탈북자를 지원하는 문제부터 다루어야 하리라 봅니다. 정신적 안정을 찾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통일 이후 남북간 이질감 해소에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장래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들을 지원하고 통일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 ■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어 사회복지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체로 사회복지라고 하면, 소득의 재분배, 물질적 후원 또는 공적인 부조를 떠올리게 됩니다. 경쟁사회에서 부득이하게 낙후될 수 밖에 없는 이웃에 대한 배려라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지만, 소중한 인연으로 맺어진 우리 모두가 정신적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이 불국정토요, 불국정토가 곧 복지사회라고 봅니다.

## ■ 승단이나 종도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종도들의 더욱더 큰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간 산발적으로 여타 단체나 시설에 사원단위 또는 개인적으로 후원해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종단에서 설립한 복지법인에 더 많은 지원과 후원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종단의 복지법인을 통해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사업을 펼쳐나가는데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btn 소식

## 프로그램 부분 개편, 3개 프로 신설

불교TV(사장 허문도)는 6월 28일부터 '임시생을 위한 참선지도', '혜원스님의 선체조', '사찰통신' 등 3개의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부분개편을 단행했다.

'임시생을 위한 참선지도'(월~토, 오전 6시45분~오전6시55분)는 다양한 참선 내용과 지도방법 등을 알려주고 있다. '혜원스님의 선체조'(월~토, 오전6시55~오전7시55분)는 실생활에서 간단히 응용할 수 있는 선체조를 소개하고, '사찰통신'(월~토, 오전8시15분~오전8시25분)은 종단이나 사찰 소식 등을 음악영상과 함께 전해 주고 있다.

## BBS 소식

## '발전연구기획단' 발족

불교방송(사장 성나승)은 2천년 개국 10주년을 앞두고 급변하는 방송환경과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6월 3일 '불교방송 발전 연구기획단'을 발족했다. 기획단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그간 활동을 통해 방송제작 및 기술, 재정 확충 및 사업, 후원회 활성화, 방송 포교, 광고유치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 신·간·안·내

## 『선(禪)에서 배우는 經營』



저자가 80년대 말 불경기로 고전 하던 일본 중소 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강의 정리하였던 내용을 책으로 펴낸 것을 '한국 불교종단협의회 총무과장을 역임했던 이남재씨가 일본 유학 중에 번역했다.

이 책은 종교가 아닌 윤리나 이론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수행과정에서 깨닫는 마음의 평온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선에 근거한 포용적인 자세, 즉 '무경계(無境界)의 발상' 이야기로 새로운 경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도서출판 여래杵, 가격 5,000원.

## ◆ 지난호 총지퍼즐 정답자

• 박미영 (경북 포항 창포동 618-9)

## 전시의 장

초원의 대서사시...  
대자연의 역사가 살아 쉬는 몽골의 유목문화 속으로...

## 몽골 유목 문화대전

몽골 유목생활 유물전시 및 체험, 영화상영 등 각종 행사 열려



▲ 옴스글(샤먼의상)-천조각으로 엮은 끈 형태의 장식과 동경 등이 달려 있는 사면 복식(몽골 옮스박물관소장)

개관 3주년을 맞는 경기도박물관이 한국, 몽골, 일본을 잇는 삼국간 국제교류의 자리를 마련하는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새천년을 맞아 아시아의 중심에서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몽골민족의 생활문화를 소개하므로써 한국 문화에 대한 근원적 이해와 더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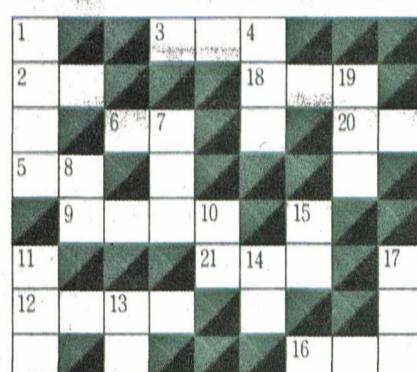
우리의 관심을 세계로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전시회의 의의를 두고 있다. 몽골은 우리 민족의 이동루트와 닿아있는 민족으로 우리나라를 '사돈의 나라', '형제의 나라' 그리고 '솔룡고스'(해뜨는, 무지개나라 사람)라고 부른다. 인종학적으로 또 언어학적으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지 곤지, 제기차기, 씨름, 무당, 돌서낭, 돌하르방, 담뱃대, 쌈지 같은 놀이, 신앙, 생활 용구 등 크고 작은 생활모습에서 많아졌다.

이번 전시회는 몽골 문교부와 일본 국립미족박물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 전시기법면에서 단순히 보는 전시에 머무르지 않고 타민족의 생활문화를 직접 접하면서 우리 문화의 관련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체험형 전시 및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첨단 정보전시를 활용하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끌게 한다.

앞으로 남은 체험행사 및 각종 기념행사는 '우리 장승만들기와 몽골 오보축제'(7.24. 토, 오후4시~6시), '해설이 있는 음악회'(7.24. 토, 오후5시~7시), '몽골로 가는 테마기행'(8.7. 토, 오후2시~6시), '관립객 70만 돌파기념행사'( 입장객 70만 돌파일에 입장하는 몽골반점이 있는 야기관립객 기념품 증정, 신착순 20명, 오전 10시~12시) 등이다. 또 매주 수·토요일 오전11시~12시, 오후 3시~4시, 일요일 오후12시~1시에 몽골관련 영화도 상영한다.

이번호에는 국광사 주교 법성 정사님의 기사제보 도움이 컸습니다.  
『신행수기』, 『홍순지씨 친불가 CD』 취재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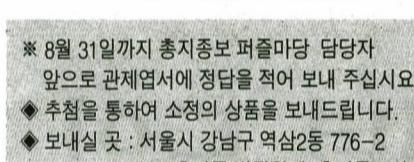
## 총지 퍼즐마당



다에 나는 장어. 16) \*\*\*문화,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 불교 문화. 8월 29일까지 서울에서 이 미술이 전시된다. 18) 신라 사람이 당나라에 세운 절. 20) 뚝, 오줌과 썩은 동식물 따위를 썩힌 것, 식물이나 땅에 영양을 주는 것. 비료. 21) 서울과 부산을 운행하는 복선 철도.

## 세로글쇠

1) 부처님의 속세 제자. 보살행업을 닦은 거사로 그 수행이 대단하였다. 4) 절에 있는 산신을 모신 집. 7) 보배의 그릇, 그 안에 온갖 물건을 넣어 두면 자꾸 생겨 아무리 써도 줄지 아니함. 10)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경치, 비경. 11) 부처님의 10대 제자, 지계제일. 13) 꿩의 수컷→끼우리. 14) 손으로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 대나무살에 종이나 헝겊을 발라서 만듬. 15) 조용히



\* 8월 31일까지 총지종보 퍼즐마당 담당자 앞으로 관계업자에 정답을 적어 보내 주십시오.  
◆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보내실 곳: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불교총지종 법장원내 총지종보사

## BBS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 BBS 불교방송은 존폐의 위기에서 안정을 확보하였습니다.

- IMF 환란으로 지난해 광고수입이 감소하여 (70%) 개국 8년만에 최악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成樂承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80억원의 적자를 탈피하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 BBS 불교방송은 공중파 방송언론사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 생동감 넘치는 신선한 뉴스 프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다양한 교양 프로,
-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편안하고 독특한 포교 방송으로 청취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BBS 불교방송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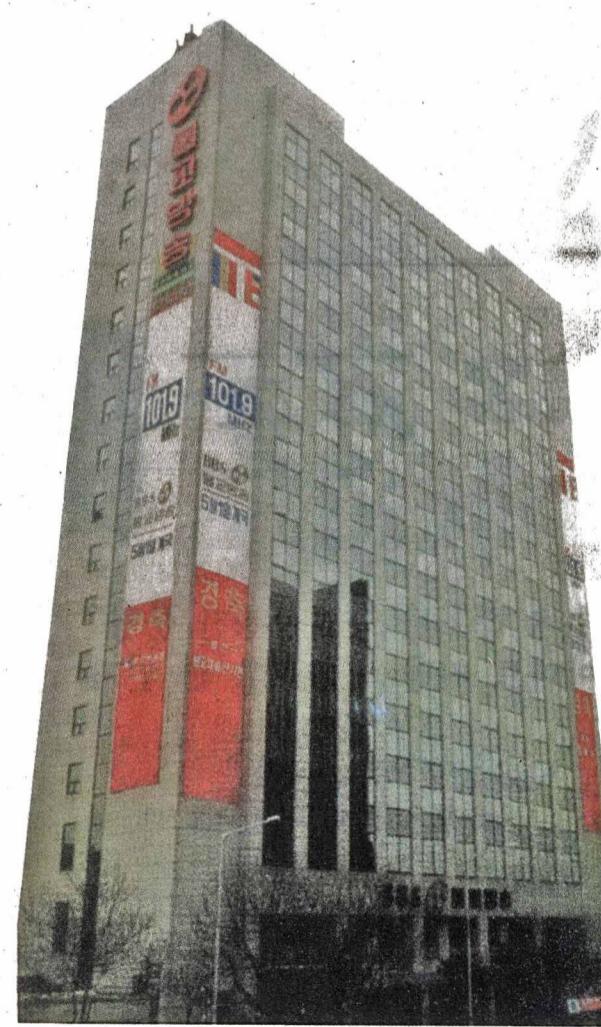
- 2,000만 불자 모두가 불교방송을 청취하시면 매월 20억원의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불교방송 서울 본사 : FM 101.9MHz**

부산지방국 : FM 89.9MHz  
대구지방국 : FM 94.5MHz

광주지방국 : FM 89.7MHz  
청주지방국 : FM 96.7MHz

**BBS** 불교방송



○ 대표전화 : (02)705-5114  
○ 방송참여 : (02)705-5555~8  
○ 후원회 : (02)705-5560~1  
○ A X : (02)705-5229  
○ 후원회 지정번호 : 8003478